

1.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 “구원”, 교회를 가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구원’, 신앙인의 궁극적 목표이며 목적이기도 한 ‘구원’, 확신을 가장 많이 강조 하면서도 가장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말 “구원”, 도대체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나요? ‘구원’하면 떠오르는 사람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입니다.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종말에 구원의 완성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구원과 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구원과 천국”,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배웠습니다.

이 칭의론이 과거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 이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불편한 이야기긴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 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 치고, 탈세하며, 약한 자를 억압하는 등 이웃에 해코지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죄 사함의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측면으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 받는 것인데, 그것은 죄사함 받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 것은 구원이고 지옥에 간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구원의 기쁨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 _____

-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_____

- 글에서 지적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이해가 사회와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_____

-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소망, 즉 구원의 완성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며 이 땅에서의 삶과 분리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 공의와 자비로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